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6. 29.(목) 11:00 < 6.30.(금) 조간 > 배포 2023. 6. 29.(목)

청정수소 인증제, 민관이 머리 맞댄다

- 40여 개 기업·공공기관 등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 민관 토론회(포럼)」 열려
- 민관 합동 토론의 장 마련으로 인증제 설계 속도감 있게 추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기준·절차 등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역량을 결집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청정수소 관련 투자도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 29일(목)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40여 개 수소 관련 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정수소 인증제 민관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였다.

국내 청정수소 인증제는 지난 4월 '업계 설명회' 개최 이후, 수소법 하위법령 입법 예고가 완료되어, 현재 법령 심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청정수소 인증방법론과 성과보수 안(인센티브 안)에 대한 별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포럼)는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의 주도적 참여와 민관 공동 논의를 통해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인증제 설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CHPS) 등 연관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토론회(포럼)에서는 '국내외 청정수소 인증제 동향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국내외 전문기관들의 발제가 진행되었다. 아거스 미디어 등 해외 전문기관은 해외 유사 인증제 현황 및 국제(글로벌) 수소 가격 정보 등을 공유하였고,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등 국내 전문기관은 현재 진행 중인 인증제 설계 방향 및 성과보수 안(인센티브 안) 등을 소개하였다. 발제 이후 참여자들의 열띤 토론과 질의가 이어졌다.

이옥헌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정부는 국정과제(21번,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육성') 이행을 위해 수소 관련 기업, 공공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의 장을 지속 마련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 중 수소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 청정수소 인증기관 지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제동향을 고려하면서도, 우리나라 여건에 부합하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수소경제정책관 수소경제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범수 (044-203-3950)
		담당자	서기관	정민규 (044-203-3951)
			주무관	김광겸 (044-203-3957)

참고 「청정수소 인증제 민관 포럼」 계획

□ 추진배경

○ 향후 **청정수소 관련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민관 공동논의** 필요성 대두

○ **정책의 이해당사자인 기업**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민·관 포럼 개최**를 통해 관련 **해외동향, 국내 추진방향** 공유 및 논의

□ 행사개요

○ **(일시/장소)** '23.6.29(목), 13:30~16:00 / **한전 전력연구원 2연구동 강당**

○ **(주최/주관)** 산업통상자원부 / 한전, H2KOREA

○ **(참석대상)** 국내외 청정수소 사업 개발 유관기업·기관(40개 내외)

< 포럼 세부 일정>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3:30~13:35	5'	· 행사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3:35~13:40	5'	· 인사말씀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13:40~14:00	20'	· 해외 유사 인증제(EU ISCC) 및 인증절차 소개	컨트롤 유니온
14:00~14:20	20'	· 글로벌 수소가격 예측방법 및 인증제 동향	아거스 미디어
14:20~14:40	20'	· 청정수소 인증제 국제동향 및 국내 인증제 추진방향	수소융합얼라이언스 (H2KOREA)
14:40~15:00	20'	· 인센티브안 설계동향 및 예상 이슈	KEI컨설팅
15:00~15:57	57'	· 토론 및 질의응답	참석자
15:57~16:00	3'	· 마무리 말씀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